



아시아리뷰

제16권 제1호(통권 36호), 2026

## 국제질서 재편기 김정은 체제 '자기재현' 방식의 변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 서문

# 국제질서 재편기 김정은 체제 ‘자기재현’ 방식의 변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김백영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아시아연구소 동북아시아센터장

김정은 체제하의 북한사회는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북한사회 내부를 들여다보기에 앞서 우선 남북한을 둘러싼 국제질서의 변화 동향에 대해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22년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최근 발발한 미국-이란 전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최근 국제질서는 강대국 정치의 귀환과 자국 우선주의의 확산으로 전례 없는 혼란에 직면하여 요동치고 있다. 중국의 급격한 부상에 맞서 미국은 인도양-태평양 지역에서 힘의 우위를 강조하며 동맹국에 강한 안보 분담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남중국해와 한반도를 잇는 역내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혹자는 오늘날의 미·중 간 패권 경쟁 양상을 ‘냉전’으로 지칭하기도 했지만, 최근의 변화는 단지 냉전 시대로의 회귀라기보다는, 글로벌 상호의존성이 유지되면서도 미·중을 중심으로 한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면서 지역별·이슈별로 다층적인 연합과 갈등이 중첩되는, 새롭고 복합적인 국제질서가 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질적인 이데올로기 진영 간의 각축이 명확히 표출되던 냉전 시대 국제질서와 달리, 작금의 국제질서는 경제적 상호의존과 안보적 대립, 다자주의와 진영화 논리가 동시에 작동하는 복잡한 구조변동 양상을 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1990년대 이후 북한을 적대시해 온 ‘팍스 아메리카나’ 질서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미·중, 북·미, 북·러 간 관계를 비롯한 기존 국제질서가 전면적

으로 재구성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국제질서의 과도기적 전환 국면을 맞아, 특히 동아시아에서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과 북·중·러 밀착, 그리고 일본의 ‘반격 능력’ 확보를 통한 본격적인 재무장 추진 등으로 인해 기존의 안보 지형에 심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북한이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과의 전통적 관계를 재조정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이러한 국제질서의 전면적 재편 국면에 대한 김정은 체제의 대응 양상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북한의 변화 양상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이해하는 새로운 시각의 도입이 절실하며, 학제적·다면적 접근을 통해 구조, 행위자, 담론, 문화를 다각적으로 조명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그동안 북한에 대한 한국 사회의 주된 관심은 표면적인 정치·군사적 사안에 치우쳐, 북한사회의 내밀한 변화에 대해서는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 더구나 북·미 간의 하노이 노딜과 윤석열 정권의 대북 경직화 노선 이후, 미·중 간 전략경쟁 심화와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거치면서 북한 이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예전에 비해 크게 약화되어 왔다.

본 특집은 이러한 국제질서 재편기 북한 김정은 체제의 변화 양상을 ‘자기재현(self-representation)’ 개념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 문제의식의 산물이다. ‘자기재현’이란 학제에 따라 다양한 개념적 정의가 가능하겠지만, 여기서는 하나의 사회가 스스로를 표현하는 다양한 문화적 방식, 즉 한 사회의 시대상과 세계관이 다양한 형태(담론, 영상, 건조물, 집합행위 등)로 형상화되는 방식을 뜻한다. 자기재현은 일면 ‘프로파간다(propaganda)’와 유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프로파간다는 통치 집단의 이데올로기를 피통치자에게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행위’에 방점을 두고 있으나, 자기재현은 ‘피통치자’의 감각과 해석틀도 재현에 반영된다는 점을 고려함으로써 통치 집단의 정당성이 확보되는 상호작용적 ‘과정’을 중시한다. 따라서 내집단의 집단 정체성이 형성·확산·변용되는 양상을 단지 발신자의 발화적 실천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발화 대상과의 관계적 측면과 메시지가 전달·수용되는 과정적 측면까지 주목하여 다양한 변이가 출현하는 양상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자 하는 데 이 개념의 주된 효용이 있다. 자기재현 개념은 검열부터 선동까지 억압적 측면과 생산적 측면이라는 양 극단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재현적 실천 양상을 분석의

대상으로 포함하는 개념인 것이다.

자기재현 개념이 북한 연구에 유용한 이유는 북한 체제가 단순히 위로부터의 일방적 통제만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피통치자인 변화하는 북한 주민들의 감수성과 외부 세계의 시선을 의식하고 이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재구성해 왔기 때문이다. 특히 김정은 시대에 접어들면서 시장화의 진전, 정보 유입의 증가, 세대적 변화 등으로 인해 북한 주민들의 문화적 감수성과 기대 수준이 크게 변화했으며,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위상과 이미지 역시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다. 이러한 내·외부 환경의 변화 속에서 김정은 체제가 자신을 어떻게 재현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북한 체제의 작동 메커니즘과 변화 동학을 이해하는 핵심 열쇠가 된다.

본 특집은 이러한 분석틀을 적용하여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진 2018년부터 하노이 노딜, 코로나 사태, 그리고 국제질서의 지각 변동이 본격화되고 있는 최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매체에서 재현된 북한의 모습을 통해 김정은 체제의 자기재현 전략을 입체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이 시기는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 협상을 시도했다가 교착 상태에 빠지고, 팬데믹으로 인한 극단적 폐쇄를 경험한 뒤,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며 새로운 외교 노선을 모색하는 시간들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급격한 대내외 환경 변화 속에서 김정은 체제는 정치축제의 형식 변화, 감성정치를 통한 리더십 재구성, 대남 담론의 근본적 전환, 각종 대외 상업·문화 공간에서의 이미지 관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재현 전략을 조정해 왔다. 본 특집에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개의 상호 연관된 연구를 통해 김정은 체제가 자신을 어떻게 재현하고 있으며, 그것이 내적·외적으로 어떠한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는지를 다층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첫 번째 논문인 김백영·조민주의 “김정은 시기 북한 정치축제 재현방식의 변화: 미디어 야외공연을 중심으로”는 극장국가 북한이 창안해낸 대표적 자기재현 방식 중 하나인 정치축제가 김정은 시기에 접어들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미디어·주체·공간의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분석한 연구 결과물이다. 분석 결과, 김정은 시기 정치축제의 자기재현 양상에서는 첫째, 뉴미디어(특히 조명효과)를 활용하여 시각성이 크게 강화된 점, 둘째, 과거의 노동집약적인 대규모 균중

동원 방식에서 벗어나 능동적이고 새로운 문화적 감수성을 띤 신세대(‘장마당 세대’)의 등장으로 인해 참여방식이 변화한 점, 셋째, 주로 폐쇄적 공간을 이용해온 전통적 관행에서 벗어나 개방적이고 장소적 상징성을 띤 공간을 활용하는 무대의 변화 경향이 나타남을 발견하고 있다.

두 번째 논문인 김윤희의 “절대권력자 김정은은 왜 자주 우는가?: 고립된 존재의 실존적 위기와 감정의 동학”은 김정은의 공개적 감정표출을 감성정치 이론으로 분석하여 ‘공포에 기반한 통치’와 ‘연민에 의한 통치’가 결합된 새로운 권위주의 통치 양식의 출현을 포착한다. 이 논문에서는 우선 김정은의 ‘고독한 자아’를 형성시킨 요인을 다섯 가지로 나누어 조목조목 분석한다. 김정은의 눈물은 이처럼 복합적으로 형성된 고독이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분출되는 인간성의 표출이자, 김일성 시대의 보편적 배급 기능을 상실한 체제가 인민과 감응하는 새로운 통치 메커니즘이다. 공식 석상에서 지도자가 쏟아내는 눈물은 즉시 집단의 통곡이 되어 공동체가 공유하는 통증의 공명으로 이어지며, 이를 통해 국제적 고립과 체제의 억압 속에서 개인의 고통은 국가적 서사로 승화된다. 따라서 가족국가 담론과 감성 리더십의 결합은 선대 수령들과 차별화되는 김정은 체제의 정당성 확보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세 번째 논문인 임수진의 “‘적대적 2국가론’을 통한 북한의 자기재현 전략: ‘민족’과 ‘평화·공존’ 담론의 변형과 효과”에서는 북한이 2023년 공식화한 ‘적대적 2국가론’을 김정은 정권의 집단적 자기재현 전략으로 개념화하여 ‘적대적 2국가론’을 계기로 남북의 ‘적대적 공존’ 서사를 통해 자신과 남북관계를 어떻게 재규정하고 재현하고 있는지를 삼차원적으로 분석한다. 평화·공존·민족이라는 핵심 개념이 어떻게 재코드화되고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2023년 이후 ‘통일’과 ‘민족’ 상징체계의 축소는 남북관계를 규정하던 담론과 정체성의 근본적 재구성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단기적 체제 안정과 장기적 남북협력 기반 약화라는 이중적 효과를 야기하고 있음을 밝혀낸다.

네 번째 논문인 김란의 “재현의 재현을 보는 시선: 중국인이 보는 북한식당과 ‘북한적인 것’”은 중국 내 북한식당이라는 초국적 소비공간에서 북한의 재현 전략과 중국인 수용자의 시선이 교차하는 양상을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를 통해 ‘재현의 재현’ 양상, 즉 북한의 자기재현이 중국인이라는 외부자들에게

서 어떻게 수용되고 재해석되는지, 젠더화 전략을 통한 '신비로움'의 생산과 '호기심 자본'의 확보 양상에 대해 살펴본다. 분석 결과, 중국인 수용자의 북한식당 인식은 냉전기부터 형성된 북중관계의 역사적 맥락, 즉 중국(남성)-북한(여성)의 젠더화된 위계구조('젠더화된 오리엔탈리즘') 속에서 작동하고 있음을 밝혀낸다.

이상 네 편의 논문은 김정은 체제의 자기재현을 정치축제, 감성정치, 대남 담론, 해외 소비공간이라는 다층적 차원에서 분석함으로써 북한사회를 다뤄온 기존 시각에서 충분히 주목하지 못했던 북한사회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기재현'이라는 분석틀은 일방향적 선전(프로파간다)의 차원을 넘어서, 피통치자의 능동성과 외부 수용자의 시선을 포함하는 다양한 정동정치의 동역학까지 분석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북한사회 변화의 역동성에 대한 입체적 이해를 추구한다. 이는 통치 집단의 정당성 확보 노력을 단지 하향적인 정책의 실행이라는 측면뿐만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전개되는 쌍방향적인 사회적 상호작용 과정을 중시하며, 통치의 억압적 측면과 생산적 측면을 모두 포착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북한의 자기재현이 북한과 특수한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에서는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 즉 재현이 외부에서 어떻게 다시 재현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재현의 대외적 효과까지 파악하고자 한다.

이처럼 본 특집에서 제시하는 자기재현 개념은 북한 체제 연구에서 중요한 이론적·방법론적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북한 연구가 체제의 억압성과 폐쇄성을 강조하거나, 반대로 변화와 개방의 징후를 과도하게 부각하는 경향이 있었다면, 자기재현 개념은 북한 체제가 내·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자신을 전략적으로 재구성해가는 과정을 쌍방향적 역동성에 주목하여 균형감 있게 포착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정치·경제·군사 중심의 북한 연구를 넘어서, 문화·예술·감성·젠더 등 생활세계 층위를 포함한 북한 사회의 다층적 변화를 해독함에 있어 유용하고 적합한 분석 도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질서가 미·중 전략경쟁을 축으로 급격히 재편되고, 북한이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새로운 외교 노선을 모색하는 상황에서, 북한 체제의 자기재현 방식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학술적 관심의 차원을 넘어 실천적·정책적 차원에서 다차원적인 중요성을 띤다. 북한이 자신을 어떻게 표상하고, 그것이 내

부 사회구성원들과 외부 세계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며, 궁극적으로 어떤 정치적·사회적 효과를 발생시키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향후 남북관계의 전개 방향을 전망하고 바람직한 대북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근간을 이루는 선결적 과제일 것이다. 본 특집이 복합적 국제질서 변동 속에서 북한 체제 변화의 성격과 향방에 대한 인식을 더욱 심화하고 다각화함으로써 남북한 간 상호 이해 증진의 학문적 토대를 마련하고 새로운 대북정책 수립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투고일: 2026년 4월 2일 | 게재확정일: 2026년 4월 3일